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고영민
(경동대)

1. 서론

국제회의에서 연사의 연설을 통역할 때 통역사의 주된 역할은 일방적인 정보제공자로서의 연사가 발언하는 의미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며, 따라서 통역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입시킬 여지가 거의 없다. 이 때 통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종의 수도관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신속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 통역사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화자가 두 명 이상 존재하는 대화를 통역하는 통역사의 역할은 정보제공자의 수가 복수인 화자의 발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주 대화자들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왜냐하면 발언이 연사 개인의 의도대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에서의 연설을 통역할 때와는 달리 대화통역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화자 사이의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이 통역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화통역은 국가 정상 간의 대화나 법정통역, 의료통역,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 관광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역의 형태이면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벅셀릭슨(Berk-Seligson)의 미국 법정에서의 통역에 관한 연구와 바덴스조(Wadensjö)의 이민국과 의료 통역, 그리고 전화통역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기점으로 구미 통·번역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민자의 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법정,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대화통역에 관한 연구가 앞서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며, 우리 사회도 이제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나 외국 병원의 국내 진출 등에 대비해 대화통역의 특징과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대화통역사의 역할이 국제회의에서 주로 연설을 통역하는 회의통역사의 역할과는 다른, ‘중재자’적 역할이라는 점과, 따라서 유능한 대화통역사의 자질은 연사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대화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순간적으로 잘 파악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설통역과 대화통역의 비교

통역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식은 발화자가 발화한 후 통역사가 통역을 시작하는 시간차의 정도에 따라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동시통역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국제회의장에서 일하는 통역사를 가리켜 ‘동시통역사’라고 지칭하지만 사실은 동시통역사란 직업은 없고 국제회의통역사 또는 회의통역사가 존재하며, 동시통역이란 그들이 통역을 수행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한편, 발화 시간차에 따른 이러한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으로의 구분 이외에도 발화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통역을 국제회의에서의 일방적인 연설통역과 대화통역¹⁾으로 나눌 수 있다. 연설통역에서는 연사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메시지를 청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전달하는 것이 통역사의 최

우선적인 사명이다. 연설통역이 진행되는 상황은 세계 각국에서 온 개인이나 단체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발표인 반면, 대화통역이 진행되는 상황은 대개 한 개인의 문제, 예를 들면 법원이나 병원에서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화통역은 일반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양방향 통역이다. 따라서 메시지의 의미전달을 위한 번역 뿐 아니라 주 대화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재자 역할도 한다.

대면 통역과 연설통역의 특징은, “대면 통역은 대개 통역사 이외에도 두 당사자가 관련되며,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담화를 다루며, 발언시간이 비교적 짧고, 통역이 양방향성이다. 이에 반해 연설통역은 독백을 다루며, 원천 메시지 자료가 사전에 계획되고 종종 원고가 있으며, 발언시간이 길고, 한 방향으로의 통역”(Mason 216)이라는 점이다.

대화통역은 통역사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사람의 직접적인 대화 참여자가 있다. 반면에 연설통역은 연사, 통역사, 그리고 청중이라는 삼자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자는 사실상 연설을 하는 연사 한 사람이다. 통역사는 연사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며, 청중은 연설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만 보일 뿐이므로 연사나 통역사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대화통역사는 두 사람 이상의 대화자 사이에서 주로 순차통역 방식으로 통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화자들의 발언순서를 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긴 발언 사이에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통역사 스스로의 기억용량, 화자의 발언 스타일, 그리고 통역사의 개입이 화자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려야 할 중요한 판단이다. 그러므로 대화통역사에게는 고도의 순발력이 필요하다.

1) 메이슨(215)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자들 사이의 양방향 통역 (two-way interpreting)에 대한 명칭으로써 ‘bilateral’, ‘liaison’, ‘ad hoc’, ‘public service’, ‘community’ 통역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그러한 용어들은 통역과정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측면들을 가리키며,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가적 지향성에 따라 선호되는 용어라고 지적한다.

3. 대화통역사의 역할

대화통역사는 전문성이나 힘의 세기가 서로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화자들 사이에 서서 대면 통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유한 역할을 지닌다. 통역사가 부스 내에서 연사의 일방적인 발언을 통역하는 연설통역과, 통역사가 대화자들 사이에 위치하여 통역하는 대화통역 사이에는 통역사의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통역사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진다. 두 사람이 얘기할 때와 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단순한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 이상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목소리부터 서로간의 눈치보기 까지 담화의 전체적인 차원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대화통역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통역사를 포함한 세 참가자가 있는 통역이므로 중재자가 존재하는 상황적 특징, 예를 들어 두 사람일 때와는 행동방식이나 어투가 다른 현상이 존재한다.

고프만(Goffman 21-39)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는 상호간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만 제 삼자가 출현하게 되면 이는 곧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모임에 포함되거나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포함이 된다면 이 사람은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세 사람 이상이 단일 언어를 쓰면서 대화하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기능은 하나의 대화 속에서 여러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의 조직 속에서의 대화형식에서는 참석자들을 포함시키고 배제하는 이러한 책임이 특정한 역할보유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공식 행사에서의 의장이나 가족치료 시간에서의 치료자가 좋은 예이다. 통역사가 중재하는 만남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자, 즉 통역사가 적극적이고도 즉각적이며 지속적으로 의미 생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 개입하는 것이 기대된다.

3.1. 상호작용 행위에 대한 통역

대부분의 통역사들은 항상 좋은 통역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 생각을 가지며, 일상적인 의미에서 통역이라고 하면 ‘정보전달’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보상실의 가능성을 떠올린다. 왜냐하면 정보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통역사의 작업은 원래의 텍스트나 발언과 똑같은 정보와 사실, 그리고 감정을 보유한 텍스트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 이것이 바로 언어에 관한 독백적인 인식, 즉 독백주의이다”(Wadensjö 7). 이와 관련해 메이슨은 통역사를 기계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역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통역사가 더도 덜도 아닌 원천 발언의 축어적이고 정확한 번역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통역사를 일종의 통역기계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종종 간과된다.
(Mason 218)

언어의 독백주의에서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두 가지 말을 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허버트(Herbert)는 통역사를 “필요약”(4)이라고 말한다.

통역사의 통상적인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보이동 모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일방적인 정보이동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도관 모형이다. 흔히 통역사들이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규범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수도관 모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앵무새’ 등과 같은 별명을 얻게 된 것이며, 이것은 기술적인 도움 외에는 이런 정보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역사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전달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통역사들 스스로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은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듣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재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역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적 활동에 종사한다. 나아가, 두 경우 모두 통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도관으로서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Jones 66)

이러한 수도관 모형은 독백에 적용된다. 독백은 언어사용이 화자의 시각에서만 관계된다. 단어와 발언의 뜻은 화자의 의도나 전략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화자가 준비한 정보의 수신자로만 간주된다.

또한 의미를 창출함에 있어서 화자 개인이 마치 상호작용의 맥락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진공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언어와 언어사용에 대한 이런 독백적 시각은 사전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사전 이론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음소, 단어, 문장 등의 텍스트 구조들을 이용하여 언어를 개념화한다.

지금까지 통·번역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독백주의, 특히 텍스트 모형이 연구방편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사람들의 대화나 통역사의 일이 언어 내에서의 텍스트 또는 텍스트 제작으로써 연구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연구조사를 하면서 하나의 ‘텍스트’와 어떤 언어적, 문법적으로 정의된 특정 언어 속에서의 확립된 기준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대화를 텍스트 제작이라고 보는 이런 접근 방법 대신에 하나의 행위 또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사회언어학 및 사회심리학과 연결된다. 그러나 하나의 접근방식이 다른 하나의 접근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바텐스조는 대화를 텍스트로 보는 견해와 행위로 보는 견해로 구분하면서 “대화를 행위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언어사용이 다른 종류의 인간활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서 연구되고 발언의 기능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행위자들의 이해와 연관되어서 이해되며 행위자들의 견해는 다시 그들의 예측과 커뮤니케이션 계획에 의존한다.”(Wadensjö 22)고 말한다.

일반인들 뿐 아니라 통·번역사들도 통역에 관해 얘기할 때 이것을 개인의 텍스트 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역사가 중재하는 상호작용’의 통역에 관계될 때에는 그들은 면담, 농담, 논쟁, 순응 등 모든 종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스스로를 그렇게 본다. 이는 통역사와 다른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히 적용된다. 그러나 텍스트 제작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남는다. 통역사는 끊임 없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상황에서 추출하여 제 2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텍스트 제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정 상황에서 사람들은 통역사를 텍스트 제작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이 바로 법률적 제도가 통역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 관점은 경험적 자료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연구과정에 도움이 된다. 필요에 의해서 대화자료를 문서로 만들 때, 즉 오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음성을 문서화할 때는 언어에 대한 텍스트 관점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통역

사로 하여금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대화가 나타내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텍스트로서의 텍스트’ 모형은 불충분하며,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부분적으로 오도할 수도 있다.

통역사가 중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할 때는 대화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이, 즉 텍스트 제작이 아니라 행위들로 보는 것이, 기본 입장이 된다. “두 사람 간의 대화에 근거해서 나온 연구결과를 세 사람 이상의 집단에 대한 연구에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회의통역의 특징으로 인해서 회의통역에 대한 연구는 모든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 보다는 통역사의 행위에 대한 것이 주된 연구대상이다”(Mason 216). 따라서 회의통역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대화통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대화주의에서의 언어는 ‘역동적’이며 ‘상호작용적 질서’가 있다. 언어가 역동적이라는 의미는 통역을 연구할 때 통역사 개인의 머리 속에서 처리되는 작업수행의 과정이나 그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러한 만남의 상황적 변수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언어가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뜻을 지니고, 통역사가 중간에 존재할 때에는 회의통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3.2. 중재자 역할

이론적으로는 통역과 중재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하팀 앤 메이슨은 통·번역사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번역사는 만약 자신이 없으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두 당사자들간의 일차적이고 주된 중재자이다... 일반적인 원천언어나 목표언어 독자들과 달리, 통·번역사는 제작하기 위해서 읽고, 재부호화하기 위해서 부호해독을 한다. 즉, 통·번역사는 통상적으로 출력물이 되어 독서 과정의 마지막이 될 정보를 통·번역 과정에서의 입력물로 사용한다.

(Hatim and Mason 223-4)

그러나, 대화통역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중재자로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통역사는 실제로 신체가 현장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대화자들 사이에 위치한다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사회학자 짐멜(Simmel)에 따르면 “세 구성요소 중 각각의 요소는 다른 두 요소 사이의 중재자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중재하는 사람이 지닌 양날의 기능은, 합치고 분리하는 기능이다”라고 하였다. 중간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 난민 공청회 같은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대화통역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중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모두 일종의 중재자이다. 즉 우리 모두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중간자적 입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항상 통역자, 즉 중재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²⁾

중재자의 역할은 다자간의 상호작용일 때 확연히 드러난다. 고프만(201-46)에 따르면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팀의 구성과 재구성, 그리고 중재인의 창출과 재창출로 볼 수 있다.” 참석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화자에게 관심 있는 주의를 기울인다. 때때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의 통역의 책임을 떠맡으며, 그래서 서로 공통된 대화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임에 늦게 왔거나 스스로의 의사표현을 잘 할 수 없을 때 특히 분명히 나타난다. 중재자의 역할은 전형적으로 아이를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 아이 대신 말하는 부모의 역할에서 잘 관찰된다.

통역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몰인격체’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몰인격체란, “그 자리에 참석하긴 하지만 불참한 것으로 취급되는 사람들”(ibid.: 124-59)이다. 몰인격체의 개념이 대면 상호작용에서의 통역사에게 적

2) 미드(Mead)는 개인의 행위는 오직 그가 한 구성원이 되어 있는 전체 사회집단의 행위와 관련해서야만이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개인적 행위는 그 자신을 초월하고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을 의미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자아의 의식이나 커뮤니케이션도 존재할 수 없다. 한편, 사회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회적 행위의 지속적 과정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의 구조로서, 상호적으로 서로서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향된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의 구조로서 이해된다.

용될 수 있는 면이 많다. 통역사들은 일종의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며 완전한 존재로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통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대화의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맞지 않는 대화통역사의 성격이 있다. 즉 대화통역사들은 실제로 공공연히 얘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통역사의 발언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조절하기도 한다. 실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통역사들은 단순한 통역 이상의, 사회적,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화통역에서 실제로 통역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통역사들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인 통역과정에서는 통역사가 개입하면 그것은 잘못된, 또는 아마추어적인 행위로서 금지되는 사항이다. 이는 언어와 사고가 일방통행 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옮기는 것이 통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 연설통역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이론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통역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중재자로서의 통역사’를 사이에 둔 통역은 다르다. 통역사가 중간에 위치할 경우, 상황은 두 사람만이 직접 대화할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두 사람일 때와는 집단적인 의미에서든 개인적인 의미에서든 달라진다.

통역사의 중재자 역할은 통역사의 독특한 중간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주 대화자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귀와 눈이 달려있는 반면에 통역사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독특한 즉각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주 대화자들은 대화 중에 표현되는 차례지정 신호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역사에게 의존한다. 통역사를 통해야만 상대 발언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발언을 개시, 종결, 변경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상대방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기회가 제한되게 된다.

3.3. 양방향 통역

대화통역은 전형적으로 양방향성을 지닌다. 즉, “동일한 한 사람의 통역사가 두 가지 해당 언어로 작업을 한다”(Wadensjö 49). 통역사가 중재하는 상호작용에서는 당연히 대화자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가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통역사들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당사자

들 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통역사들은 그러한 용어정의에 따라 주 대화자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배치된다. 통역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화자 및 청자로서의 입장을 그 때 그 때 적절히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역사와 주 대화자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역사는 가급적 주 대화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 즉 어느 쪽의 후방이 아닌 전방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 대화자들 사이에 위치한 대화통역사는 보통 A언어에서 B언어로, 그리고 동시에 B언어에서 A언어로의 양방향으로 통역을 수행한다. 이것은 회의통역사가 B언어에서 A언어로 한 쪽 방향으로의 통역을 수행하는 것과 대비가 된다. 이렇게 양방향 통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비 문제와 함께, 동일한 통역사가 양방향으로 통역을 해야 상황파악을 잘 해서 대화의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화통역에서는 한 사람의 통역사가 양쪽 언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 때 통역사는 텍스트 통역 뿐 아니라 문화적 중재자의 역할도 한다. 그리고 통역사는 한 번에 하나씩만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사람이 겹쳐서 말하는 것은 통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 대화자들은 대화 차례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역사에게 의존한다. 발언순서를 통역사가 정해줘야 하는 데, 여기에서 바로 통역사의 권한이 발생한다.

3.4. 입장(footing) 변화

대화통역사들은 대화참여자들 간에 변화하는 상호작용의 형식 속에서 다양한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취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입장의 변화이다. 고프만(21-39)은 ‘참여의 틀’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가 발화될 때, 가청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관련된 참여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련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들은 말하고 듣는 방식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조화시킨다. 발언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정한 발언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화자 및 청자로서의 지위를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말한다. 고프만은 청자를 우선 “인가된 청자와 비인가된 청자”로 나누었다. 비인가된 청자로서는 엿듣는 사람과 도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가된 청자들은 다시 청자가 지

정해서 말을 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구경꾼으로 나눈다. 화자의 개념은 다른 방식, 즉 발언의 제조형태로 나눈다. 우선 활성화(animater)로서, 이 경우 화자는 ‘말하는 기계’로서의 책임만 진다. 그 다음으로는 활성화와 저자(author)로서의 책임만 지고 발언주체(principal)의 책임은 지지 않는 데, 저자란 말을 만들고 조합하거나 원고를 만드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발언주체로서의 책임까지도 지는 경우인 데, 이는 개인이 발언이 증명하는 지위와 입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

바덴스조는 ‘참여의 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취형태”(81-8)라는 개념을 발전시킨다. 청취의 형태에는 우선 보고자(reporter)가 있는데, 이 때 청취자는 다른 화자가 말한 것을 반복하기 위해 기억을 한다. 두 번째 청취 형태는 응답자(responder)이다. 응답자는 스스로의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대화를 계속 전개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순서를 넘기거나 응시함으로써 질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요약자(recapitulator)가 있는데, 이는 연단에 나가 말할 때 그 전의 발언을 요약함으로써 그 전 연사들에게 공식적인 발언으로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 구분에 따라 통역사의 청취유형도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주(主) 대화참가자 또는 ‘주체’로서 청취를 하는 ‘응답자’, ‘저자’로서 발언을 반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청취하는 ‘요약자’,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들은 단어를 반복하기 위한 ‘보고자’로 구분된다.

‘응답자’: (통역사에게 직접 말을 한 범정 증인에게)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판사님에게 얘기하세요.”

‘요약자’: (“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부탁하세요”라는 요청을 전달하면서) “이름을 말하세요.”

‘보고자’: (판사의 “이름을 말하세요”라는 명령에 이어) “이름을 말하세요.”

청취형태와 제작 형태를 적용해서 통역사의 청취와 발화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고자로서 통역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활성화라는 제한된 의미로서만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역사의 기능, 즉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활성화시키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통역사는 항상 저자로서의 기능도 한다. 발언에 대한 번역문을 구성하는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지닌 통역사는 체계 속에서 요약자로

서의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해서 통역사들은 저자와 활성화자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주체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주체의 역할은 보통 그 직전의 화자가 한다. 그러나 바텐스조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응답자는 스스로의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대화를 계속 전개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순서를 넘기거나 응시함으로써 질문을 받는 데, 이것이 바로 대화통역사의 주체로서의 기능이다.

대화통역에서 통역사는 수시로 여러 가지 입장이 되는 데, 예를 들어 한 대화자는 통역사와 직접 얘기를 하면서 통역사를 메시지 수신형태에 있어서 주체적인 응답자로 취급을 하는 반면에 그 다음 발언에서의 다른 대화자는 통역사를 단순한 보고자로 취급하는 등 대화자들의 태도에 따라 통역사의 입장이 전환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대화통역사는 이처럼 수시로 대화참가의 지위와 입장을 바꿔 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면 상호작용에 함께 참여하면서 통역사들은 흔히 발화 및 청취 유형에 있어서 융통성을 지니며, 그러므로 자신을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발언하는 타인들의 발언에 관계된다. 개인의 참여 지위는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이면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동석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의 문제이다.

콜린 앤 모리스(Colin and Morris 146)는 “법정통역에서는, 업무를 수행 중인 통역사는 1인칭 단수 형식, 즉 ‘I 형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똑같은 “직접화법 통역의 원칙이 의료통역을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 통역에서도 권장된다”(González et al 28-9). 그러므로 통역사는 대화자의 말을 통역할 때 기본적으로 대화자처럼 1인칭을 써서 통역해야 하며, 전달자처럼 3인칭을 써서 “그 사람 얘기는 (He says)” 처럼 말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대화자들도 상대방에게 직접 얘기해야지, 통역에게 “.....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Ask him),” 또는 “.....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Tell him)” 라고 다른 대화자를 3인칭으로 지칭하지 않도록 미리 약속해야 한다. 혼선이나 말의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대화통역사는 자주 활성화자와 저자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한다. 또한 통역사는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주 상대방이 묻지도 않은 발언을 주체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통역사는 의사나 법조인들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역할로 전환한다. 통역사는 만약

자신의 참여 입장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대화자들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서 혼동이 없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역사는 비인격체가 아니라 분명한 참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의 책임도 지고 있고, 지금껏 간주되었던 만큼 독립적이거나 대화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참여의 틀 속에서의 개별 참가자의 입장은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조정된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의, 한 개인의 시각에서의 어떤 사람의 참여 지위는 나중에 가서야 소급적으로 확인된다.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대화의 중심에 대해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행위이다.

3.5. 발언 순서 지정

통역사가 중재하는 만남은 상호작용에 관한 통역사의 통제에 의한 독특한 발언순서에 따라야 하며, 통역사는 원칙적으로 매번 두 번 째 발언 순서를 차지하는 것이 전제된다. 주 대화자들은 발언을 하기를 원할 때마다 통역사의 기억 용량과 참석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발언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자들은 통역사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발언을 멈추어야 한다. 복잡한 메시지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부분들이 문맥에서 추출된 하나의 전체로서 통역이 될 때에는, 통역사를 포함한 대화 참석자들이 발언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발언의 중단으로 인해 주 대화자들은 자기가 할 얘기의 흐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대화통역은 대개 “원천언어 화자의 얘기에 대해 한 장면 한 장면, 순차통역으로 진행된다”(Wadensjö 49). 대화통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항상 ‘대화자(A)-통역사-대화자(B)-통역사-대화자(A)’의 순서로 대화가 진행되며, 주로 통역사의 신호에 의해 주 대화자의 발언이 개시된다. 회의통역에서는 대화의 순서가 연사-통역사-연사-통역사 순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대화통역에서는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중간중간에 주 대화자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피고가 갑자기 생각난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린이의 증세를 통역사가 의사에게 통역하는 중간에 같이 따라온 어머니가 보충설

명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때에는 통역사는 할 수 없이 통역의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통역을 하는 ‘분할 통역’을 하게 되며, 중간에 삽입된 주 대화자의 보충설명을 통역하기 위해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의 기법을 혼합하여 통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통역사는 때로 주 대화자들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계속하도록 원문에는 없는 말을 사용하면서 언어적 중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경우에도 발언순서가 잠시나마 바뀌게 된다.

통역사는 자신의 말이 끝나면 억양을 올린다든지, 주 대화자 중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든지 하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발언자를 지정하는 요령을 발휘한다. 그리고 통역할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기억력이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통역사는 “잠시만요 ...”라는 말을 하여 주 대화자의 발언의 흐름을 중지시킨 다음 통역할 수도 있다. 통역사는 자기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등의 단어를 입밖에 먼저 내놓음으로써 자기가 할 말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것을 다른 참석자에게 암시해 놓고, 잠시 후 자신이 계속 통역할 공간을 확보한다. 대화통역의 상황적 특성상 대화 도중에 누가, 예를 들면 동료, 비서 또는 간호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역사는 기지를 발휘하여 침입자가 나간 다음에 다시 그 직전에 통역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거나, 좀 전에 발언을 한 주 대화자에게 관련된 질문을 던져서 상황을 다시 연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역사는 원문에 없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발언순서도 바뀌게 된다”(Wadensjö 143-4).

한 발언자의 발언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다른 대화자가 궁금해 할 정도가 된다면 통역사는 발언을 적당한 시점에 끊고 통역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대화자들이 비록 상대방의 말은 잘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표정과 몸짓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상대방과 발언이 겹치게 될 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서 발언권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고, 심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자기 말만 하려고 더욱 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과 말이 중복될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양보하는 사람도 있다. 통역사는 이러한 대화자의 소양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서 가능한 공평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화자들은 모두 자기 발언에 대해 통역사가 주의깊게 듣고 잘 통역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양쪽이 다를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의 표현의 권

리에 대해서는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 대등한 발언자의 위치를 점한다고 생각하고 물려서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 발언순서에 대해 대화자들이 합의가 안 되고 충돌하면 둘 중 적어도 한쪽은 통역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통역사는 발언 순서에 대해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교통정리를 한다. 양측의 발언이 동시에 나왔을 때, 발언이 겹쳐서 잘 안 들려서 “뭐라고 그러셨죠?”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다시 양측에서 동시에 “제 말은”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 대화통역사에게는 이런 미묘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타이밍 감각이 필수적이다.

통역사에 의존하는 대화자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통역사가 중재하는 대화에서는 보통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각 대화자들의 반응이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대화에서보다 훨씬 더 적다. 통역사가 중재하는 대화의 성격 때문에 대화자들은 자기가 말한 후에도 통역사의 발언이 모두 끝나야 비로소 상대방 대화자의 반응을 알 수가 있다. 만약 통역사가 대화자의 발언을 통역하는 것에 통역사 자신의 말을 덧붙인다면, 훨씬 더 시간이 지나야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있다.

한편 고프만은 문장, 발언, 발언차례 같은 것들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화의 기본단위로 보기에는 모두가 불충분한 측정단위라고 생각하며, 대신에 움직임의 기본단위로 제시한다. 상호작용의 기본단위로서의 이러한 움직임의 개념은 발언순서를 정해줘야 하는 대화통역사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덴스조는 명시적 조정과 묵시적 조정을 구분하면서 “모든 통역사의 발언은 대화에서의 다음 차례를 돌리는 효과를 가진다”(109)고 한다. 그러므로 통역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전체 대화의 문지기로서 통제력을 행사한다.

3.6. 체면(face) 유지

체면이란 누구나 간직하기 바라는, 타인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이다. 그리고 체면유지 행위란 어떤 사람이 체면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체면유지 행위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의 사건, 즉 그것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체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쓰는 대응방법이다. 체면유지 작업은 무례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결과적으로 자존심을 상하

게 하는 위협성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된다.

체면에는 대화자의 체면이 있고, 통역사 또는 통역사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체면이 있다. 우선 중재자로서의 통역사가 당사자들 중 한쪽과 자신을 동일시 하여 이 사람에 대한 위협을 통역사 자신의 체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대화통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힘 차이의 상호작용과 효과이다. “거의 모든 영역의 공공기관 통역에서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와 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Mason 221). 대화통역은 주로 병원, 경찰서, 법원,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들 간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체면 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역사는 판사의 발언을 통역할 때에는 마치 판사와 같이 우월적 위치를 점하면서 냉엄하게 얘기하는 반면, 피고의 말을 통역할 때에는 비굴한 자세가 되고 증인의 말을 통역할 때에는 반대신문에 겁먹은 자세가 되기 쉽다. 이 때 통역사는 당연히 불편한 느낌을 가진다. 그러나 통역사는 계속 1인칭을 쓰면서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여러 가지 배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직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통역사가 체면을 위협하는 발언을 무시하면서 주 대화자들 사이의, 또는 그들과 통역사 자신의 갈등과 적대심을 발생시킬 위험성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비난을 감수하며, 그 결과 상호작용 속에서 잠재적인 갈등이 많아질수록 통역사가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도록 고안된 행위에 더 깊이 관련된다. 대화자들 사이에 고함소리가 오고 가지 않도록 하려는 이러한 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의 예가 바로 존대법과 호칭의 조정이다. ‘This man’이 ‘이 분’으로 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체면유지 노력 때문이다. 통역사는 대화자의 체면이 손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평범한 발언에 존대법을 적용해서 통역을 하기도 한다. 또는 역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손하게 물어보는 대화자의 발언을 그 존대법 형태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중심내용만 전달하여 대화자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힘이 약한 편에 서서 통역을 할 때 통역사들은 되도록 공손한 표현을 써서 상황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애쓰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공손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화자의 표현방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 특히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공

손함은 힘없는 증언의 특징적인 말투로 보이며 증인석에서 힘없이 발언을 하면 힘있게 발언하는 사람들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대화자의 발언과 커뮤니케이션 의도를 그대로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 잘못 표현한다면 실제로도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경찰조사를 복잡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통역사는 때로 주 대화자들이 서로 다른 규범과 태도를 가진다고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가 알게 된다면 상호작용이 방해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차이점에 관한 이러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상호작용을 잠재적인 소란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좌절, 짜증, 분노 등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그들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당연히 여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통역사로서 더 잘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질수록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 맞닥뜨리게 하면서, 표출되는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생긴다. 재미있는 표현이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 두 사람만 웃는 것은 삼가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웃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도 있거니와, 다른 사람들만 제외시키고 웃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만 남겨두고 둘만 너무 다정하게 얘기하는 행위도 대화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불편한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질투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

때로는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모호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통역사가 중재하는 상호작용에서 특별히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사용할 때, 통역사들은 흔히 대화자의 책임을 부각시킬 때는 능동태를 쓰고, 책임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수동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사는 “수동태를 사용하여 주로 검사나 판사의 발언에 대한 통역사의 책임에 대한 피의자의 오해를 피하려 한다. 특히 통역사들은 형량을 구형할 때 판사의 발언을 통역하면서 ‘나’ 또는 ‘당신’ 같은 주격대명사의 사용을 피한다”(Berk-Seligson 115).

주 대화자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지 논점이 없을 때도 있으며, 이 경우 통역사는 당연히 대화자의 발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대화자는 침묵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의 부족을 감출 수 있지만, 통역사

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통역에 실수가 있었을 때, 통역사는 요약을 통하여 자신의 실수를 교정하는 말을 포함한 통역을 하게 되는 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 대화자의 번역의 요구와 통역사 스스로를 위한 통역교정, 명확화, 요약의 필요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어떤 때는 통역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잘못된 통역을 했을 경우에도 체면 때문에 얼버무리려고 하기도 하며 통역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별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적은 발언들, 혹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치는 나지막한 발언들은 통역을 안 해도 무방하지만, 자기 체면유지를 위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설 통역과는 달리 대화통역사는 상호작용 행위의 통역, 중재자 기능, 양방향 통역, 입장 변화, 발언 순서 지정, 체면 유지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대화통역이 주로 행해지는 장소는 법원이나 병원 등의 공공기관이다. 대화자의 민감한 이해가 걸려있는 경찰이나 법정, 또는 병원에서 당사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예측하면서 피의자나 환자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만, 부연 설명도 없이 통역할 수는 없다. 대화통역사는 종종 발언을 하는 양쪽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개입시켜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서로의 거래를 무산시키는 것보다 성사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통역사의 임무이며, 억울한 피의자는 구제되도록 해야 하고, 정치적 망명자나 난민들은 입국이 허용되도록 도와야 하며, 위험한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하는 말 뿐 아니라 관련된 의료지식을 통역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부연 설명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는 방문국가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국가 홍보에 일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공공기관에서의 통역에서 수행되는 대화통역에서는 통역사의 의미전달 기능과 함께 통역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대화통역에 관한 녹취자료의 입수가 힘

든 사정으로 인해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관해 이론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앞으로 대화통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여 더욱 더 실증적인 현장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Berk-Seligson, Susan. 2002. *The Bilingual Courtroom: Court Interpreters in the Judicial Process*. Chicago: The U of Chicago P.
- Colin, J. and Morris, R. 1996. *Interpreters and the legal Process*, Winchester: Waterside Press.
- Goffman, Erving. 1986.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 Row.
- González, Roseann, Victoria Vásquez and Holly Mikkelson. 1991.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 Hatim, Basil and Ma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anguage in Social Life Series). London/New York: Longman.
- Jones, Roderick. 1998.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U.K.: St. Jerome.
- Herbert, Jean. 1952. *The Interpreter's Handbook: How to Become a Conference Interpreter*. Geneva: Librairie de l'Université.
- Mason, Ian. 2000. "Models and Methods in Dialogue Interpreting", in Olohan, M. (ed.) *Intercultural Faultlines*, Manchester, U.K.: St. Jerome.
- Mead, George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The U of Chicago P.
- Wadensjö,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New York: Longman.

[Abstract]

A Study on the Roles of Dialogue Interpreters

Ko, Yung-Min
(Kyungd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insights on the roles of dialogue interpreters in contrast to those of conference interpreters. While the speaker's utterances are regarded as a given text with the interpreter being viewed as a one-way conduit of information in conference interpreting, there are at least two main interlocutors in dialogue interpreting and there is a dynamic interaction among participants which produces the peculiarities of the work of dialogue interpreters.

Dialogue interpreters are located between the main interlocutors and they work in both directions. The participants often change their footings during the conversation. Participants, including the interpreter, pay attention to the atmosphere in which the dialogue occurs to ensure all the participants do not lose their face. The interpreter is the person who sets the turns of talk to maintain the dialogue and avoid confusion. Furthermore, the interpreter participates in the conversation as one of the interlocutors of the dialogue. Thus the main role of the interpreter in dialogue interpreting is regarded more as a mediator than mere translator, and thus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interpreters can be evaluated by how well they play the role of mediators in addition to the role of translators.

▶Key Words: Dialogue Interpreter, Conference Interpreter, Community Interpreter, Interaction, Mediating, Turns of Talk, Footing, Face